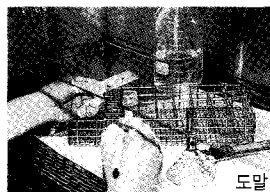


우리나라 결핵균 검사의 심장부

결핵연구원 세균과

가장 확실한 결핵의 진단은 임상 검체로부터 결핵균을 증명해냄에 있다. 결핵균 검사로 전염성 환자를 찾아내어 결핵균의 전파를 조기 차단하며 치료중인 환자의 치료 반응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핵균 검사는 국가 결핵관리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결핵연구원 미생물부 세균과는 결핵 환자의 진단과 치료, 관리에 필요한 미생물학적 검사와 병행하여 그 검사의 정도관리와 기술의 보급 및 관련 요원 교육훈련 등을 통해 결핵균 검사에 관한 국내외 표준 검사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핵연구원 세균과)



도말



염색



검정

결핵균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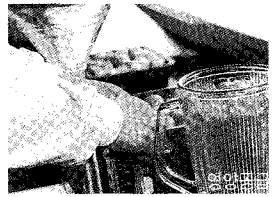
결핵균 검출을 위한 검사는 크게 도말 및 배양 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말 검사는 방법도 간단하고 저렴하며 결과도 신속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검사를 통해 균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다. 가래와 같은 검체를 유리판(slide)에 얇게 바른 다음, 특징적인 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균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배양 검사는 검체에서 균을 분리하여 키워내는 방법인데, 폐결핵 환자가 뱉어낸 가래와 같이 결핵균 외의 다른 잡균이 섞여 있는 검체에 적절한 처리를 하여 가능한 결핵균만 키워내는 방법이다. 이 검사를 통하여 적은 균이 포함된 검체로부터 균을 찾아낼 수 있고, 살아있는 균을 직접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기도 한다.

배지 제조 및 공급, 판매

배지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소를 넣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세균과 배지실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연간 16만 여건에 달하는 결핵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배지 약 35만 개를 제조, 공급하며 분자생물과

에서 사용되는 1만5천여 감수성 검사용 배지(kit)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외부 병, 의원에서 쓰이는 배지 5만여 개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외래 수탁 검사 및 건강진단 결핵균 검사

결핵연구원 미생물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균 표준 검사실이며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 항결핵 및 호흡기질환연맹(IUATLD)이 지정한 범국가적인 약제 감수성검사 표준 검사실이다. 또 국내적으로도 정도관리 우수 검사실 인증을 받아 일반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객담 배양 검사를 연간 약 5천 건씩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 및 서울지부 부속의원 환자들에 대한 객담 배양 검사 건수도 연간 1만3천5백 건 정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으로 의심된자에 대한 2차 객담을 하고 있는데 연간 도말 검사가 1천8백 건, 배양 검사가 6천 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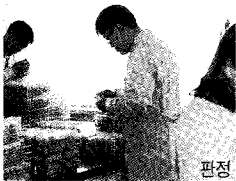
시·도 지부 검사소 및 보건소 정도관리와 교육

시·도 지부 검사소와 전국 보건소의 결핵균 검사에 대한 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과 정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인큐베이션

연초의 전국 시·도 지부 검사소장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행한 바 있는 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업무 향상 및 보건소 결핵균 검사 업무를 포함한 제반 결핵균 검사의 정도관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판정

아울러 WHO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파견되어 온 검사 요원들과 국립보건원에서 수행하는 세균 검사 요원들의 결핵균 검사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검출

이 밖에 결핵균 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검사 과정 및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결핵균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 소모품 등도 세균과에서 수급, 관리하고 있다. 세균과 모든 직원은 결핵 퇴치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구상에서 결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그날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